

월정사·강원일보 주최 '2020 오대산 문화포럼 좌담회'

“환경·녹색미래 위해 ‘다보스 포럼’과 같은 ‘오대산 포럼’ 만들자”

세계경제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다보스 포럼(Davos Forum)과 같이 환경과 녹색미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오대산 포럼’을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지난 6일 강원도 평창군 월정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4교구 본사인 월정사와 강원일보 주최로 열린 ‘2020 오대산문화포럼 좌담회’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환경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녹색 미래, 오대산에서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좌담회에서 최 이사장은 “산업화로 인한 도시의 몰락·붕괴의 유일한 해결책은 환경”이라며 “서양 중심의 다보스포럼처럼 오대산포럼을 만들어 환경의 관점에서 경제(다보스 포럼)와 두바퀴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퇴우 정남 월정사 주지스님은 “문명이 낳은 파해는 결국 환경의 문제, 생명 다양성의 감소와 더불어 모든 생명이 절멸의 문제로까지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대산부터 생태적·친환경적 환경을 만들어 생명성이 넘쳐나는 곳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구온난화 등 환경이 주는 경고와 재난, 재앙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가 먼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다”며 “에너지(액화수소)를 바꾸고 산을 보호하는 작업을 통해 탄력성이 말씀하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개벽 세상을 평창에서 열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래 작가는 “최근 인권의 문제 등은 많은 부분 해결되고 있지만 공해의 문제, 자연파괴의 문제는 앞으로 갈수록 해결이 난망하다”며 “전 인류가 조금은 불편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자는 식의 국제계약을 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는 “(코로나 19 상황속에서) 제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얻은 교훈이 온라인으로 삶을 옮겨 가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결론짓지 않았으면 한다”며 “다양성이 존중되고 다음세대가 행복할 수 있는 기술문명을 어떻게 하면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과학하는 사람 갖고 있는 화두”라고 말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평창군과 오대산이 함께 올림픽 유산사업을 추진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런 계획과 생각을 현실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오대산의 가치는 높아지고 유네스코 복합유산 등재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 오대산 문화포럼’은 9일부터 11일까지 ‘문화재 본지(本地)와 문화분권’ 토론회를 비롯한 다양한 포럼과 세미나, 문화프로그램 등을 비대면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는 “(코로나 19 상황속에서) 제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얻은 교훈이 온라인으로 삶을 옮겨 가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결론짓지 않았으면 한다”며 “다양성이 존중되고 다음세대가 행복할 수 있는 기술문명을 어떻게 하면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과학하는 사람 갖고 있는 화두”라고 말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평창군과 오대산이 함께 올림픽 유산사업을 추진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런 계획과 생각을 현실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오대산의 가치는 높아지고 유네스코 복합유산 등재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 오대산 문화포럼’은 9일부터 11일까지 ‘문화재 본지(本地)와 문화분권’ 토론회를 비롯한 다양한 포럼과 세미나, 문화프로그램 등을 비대면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녹색미래, 월정사에서 길을 묻다’를 주제로 한 2020 문화포럼 좌담회가 (왼쪽부터) 박경준 동국대명예교수, 한왕기 평창군수, 최문순 도지사, 퇴우 정남 월정사 주지스님, 조정래 소설가, 최열 환경재단이사장, 정재승 카이스트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강원도 평창군 월정사에서 봉행됐다. /강원일보=김남덕 기자

‘녹색 미래, 오대산에서 길을 묻다’ 주제...9~11일 세미나 등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만들기 위해 기후·환경문제 해결돼야”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는 “(코로나 19 상황속에서) 제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얻은 교훈이 온라인으로 삶을 옮겨 가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결론짓지 않았으면 한다”며 “다양성이 존중되고 다음세대가 행복할 수 있는 기술문명을 어떻게 하면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과학하는 사람 갖고 있는 화두”라고 말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평창군과 오대산이 함께 올림픽 유산사업을 추진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런 계획과 생각을 현실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오대산의 가치는 높아지고 유네스코 복합유산 등재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 오대산 문화포럼’은 9일부터 11일까지 ‘문화재 본지(本地)와 문화분권’ 토론회를 비롯한 다양한 포럼과 세미나, 문화프로그램 등을 비대면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The Second Decade



황선태 작 '빛이 드는 공간'

황선태
신희수
서미라
허수영
하루.K
진 훈
신호윤
이인성
이정기
하용주

광주신세계미술제 수상자들의 ‘현재’를 만나다

미술제 20주년 기념 대상 수상작가 10인전, 9~27일 신세계갤러리

올해로 개관 25주년을 맞는 광주신세계갤러리는 다양한 기획전 등을 통해 지역 미술 발전을 견인해 왔다. 매년 진행해온 ‘남도 문화의 원류를 찾아서’전은 작가들과 함께 남도 땅을 직접 답사하고 느낀 감흥을 화폭에 담은 기획으로 지역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해 온 프로젝트다.

특히 ‘광주신세계미술제’는 역량이 있는 젊은 작가들을 발굴한 기획으로 역대 수상자들은 현재 광주·전남을 넘어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개성있는 작가로서 위치를 굳혀가고 있다.

광주신세계미술제가 20주년을 맞아 특별전을 마련했다.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The Second Decade’전은 11~20회 대상 수상자들의 신작을 한 자리에 모은 의미있는 기획으로 수상작가들의 ‘현재’를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07년 개최된 10주년 기념전 ‘The First Decade’의 후속 전시로 새롭게 시작하는 다음 10년을 기약해 봄으로써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미술환경에 발맞춰 지역

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작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온 광주신세계갤러리의 지난 발전을 확인해 보는 기회이기도 하다.

참여작가는 황선태·신희수·서미라·허수영·하루.K·진 훈·신호윤·이인성·이정기·하용주 등으로 회화, 설치,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30여점을 만날 수 있다.

1996년 ‘신세계미술제 - 주제공모전’으로 시작된 이래 2002년 제5회부터 ‘광주신세계미술제 - 창작지원 공모전’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신이거나 현재 해당 지역에서 활동 중인 작가를 지원해 왔다.

‘광주신세계미술제’는 작가들의 개성을 수용하고, 역량 있는 작가발굴 및 창작지원을 통해 지역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작가지원 공모전으로 자리 잡기 위해 수상작가의 초대전 개최, 미술전문 세미나, 국내외 문화답사 및 다양한 기획전 등



허수영 작 '숲 14' (담양 명옥헌)

여러 경로를 통해 작가들을 소개하고 있다. 매년 신망 있는 미술계 인사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을 초청하여 다각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 지금까지 대상(상금 1000만원) 등 86명의 수상작가들을 선발해왔다. /김미은 기자 mekim@

강 & 그릇



영산강문화관이 주최하는 제4회 영산강문화제가 10월 한달간 열린다. 전시관 외벽에 대형 사인그래픽으로 선보이는 영산강의 다양한 그릇 사진들.

영산강문화관, 31일까지 문화제...전시관 외벽에 사인그래픽 전시

영산강문화관은 해마다 다양한 주제로 문화제를 열어왔다. 영산강 물줄기를 따라 형성된 유서깊은 남도 역사, 사회, 정치, 종교, 민속, 문학, 미술, 음악, 건축 등 다양한 문화 예술과 인문적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진행해 온 행사다. 지금까지 ‘민속’과 ‘문학’, ‘농경’을 주제로 행사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K-water 영산강보관리단(단장 신창수)과 ㈜위터웨이플러스 영산강문화관(관장 김창호)은 10월 한 달간 ‘제4회 영산강문화제 -강&그릇’을 개최한다.

인류의 정착 과정에서 저장과 조리를 위한 용기로 사용된 그릇은 의미 있는 형태와 무늬를 넣어 의식문화를 표현하기도 했다. 영산강변에도 고유의 문화가 담긴 다양한 그릇이 출토됐고 이번 문화제에서는 그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올해 영산강 문화제는 비대면 행사로 진행한다. 우선 기획전은 내부 전시관이 휴관인 관계로 건물 외벽에 대형 사인그래픽 형태의 전시를 진행한다.

가로 10m가 넘는 대형 사인그래픽을 외벽에 전시, 문화관을 찾는 방문객들이 전시를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영산강구역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그릇을 지도와 함께 이미지로 볼 수 있으며 주말에는 문화안내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또 영산강구역의 대표적인 그릇인 구명단지를 페이퍼 크레프트로 만들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영산강문화관 네이버카페를 통해 접수한 신청자에게 체험키트를 보내주면 유튜브 영상을 보며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 문의 061-335-086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